

근대시기 중국 어문교육의 변화 고찰*

김 혜 영**

<目次>

I. 서론	3. 교육잡지에 반영된 어문교육의 쟁점
II. 어문교육의 변화 양상	III.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특징
1. 학제별 어문 교과목의 종류와 구성	1. 구어교육과 백화운동
2. 어문 교과서의 출현과 전문화	2. 문법개념의 형성과 적용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당시 중국인들의 언어관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체계,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잡지에 실린 어문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 중국 어문교육의 정립 과정 및 그 안에 반영된 근대시기 어문운동의 영향력, 서양 언어학의 수용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시기 중국은 다방면에서 변혁을 일으켰으며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으로 과거입시를 위해 이루어졌던 중국의 교육은 서양의 학문, 학교체제를 도입하면서 크게 변화했다. 학교가 설립되고 교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1186)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목이 구분되면서 각 학문 영역의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어문교육 역시 경학의 부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그 체계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근대시기 어문교육은 서양의 교육체계, 언어학의 수용과 고대 어문교육에서 현대 어문교육으로의 전환의 연결고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근대시기 중국의 어문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적은 편이다. 강설금(2016)은 근대시기 인문 계열의 교과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어문교과서에 관해서 다루었다. 박영순(2011)은 ‘문학’ 학과의 정립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대해서 다루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근대시기를 포함하여 어문교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李杏保, 顧黃初(2000)의 《中國現代語文教育史》, 王松泉等(2001)의 《中國語文教育史簡編》, 趙志偉(2012)의 《現代語文教育發展》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근대시기 어문교육을 다룬 연구도 다수이다. 예로 范遠波(2007)에서는 민국시기 소학교의 어문교재를 연구했으며 白茹(2010)는 《教育雜誌》를 통해 소학어문교육의 양상을 고찰했다. 어문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학, 교육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근대시기 어문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삼는다. 첫째,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세 가지 요소, 교육체제, 교과서, 그리고 당시 교육과 관련한 잡지에서의 어문교육에 대한 논의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각 학제체제에서 어문과 관련한 교과목의 종류, 그 명칭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각각의 교육목표, 교육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어문교과서의 출현 과정과 각 단계별 어문교과서의 구성, 내용상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근대시기에 출간된 교육 관련 잡지를 통해 당시 어문교육의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연구범위는 교육체제에 근거하여 최초로 학제체제가 공포된 1902년부터 입술학제(壬戌學制)가 시행된 1927년까지로 한다.

둘째, 어문교육의 변화 안에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백화운동이 어문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 중국사회에서 어문은 근대국가의 성립을 위한 핵심요소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련의 어문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어문교육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어문교육에 있어서 서양의 수용양상을 살펴기 위해서 문법의 개념의 형성 및 그 적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양상을 밝힘으로써 서양과의 접촉으로 전통에서 현대로 변혁을 겪었던 중국인들의 언어관 변화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의 어문교육 및 언어학의 기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어문교육의 변화 양상

1. 학제별 어문 교과목의 종류와 구성

중국의 학제 시스템은 1902년, <흠정학당장정(欽定學堂章程)>의 공포로 인입학제(壬寅學制)가 탄생하면서 그 체계를 갖춘다. 하지만 이는 실제 실행되지 못했고 이어서 1904년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이 발표되고 계묘학제(癸卯學制)가 시행되었다. 이후 1912년 임자계축학제(壬子癸丑學制)가 제정되었으며 1922년에는 신학제(新學制)라 불리는 임술학제(壬戌學制)가 제정되어 1927년까지 시행된다.

본장에서는 위의 네 가지 학제체제에서 어문교육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각 학제체제의 어문 교과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¹⁾

1) 각 학제체제의 ‘학당장정(學堂章程)’, ‘학무강요(學務綱要)’, ‘교령(校令)’, ‘과정 표준(課程標準)’을 근거로 하며 중등 단계 이상의 고등학당, 대학당, 사범학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 학제별 어문 교과목의 종류

학 제	등 급	어문 교과목
인입학제	蒙學堂	字課, 習字, 讀經
	尋常小學堂	讀經, 作文, 習字
	高等小學堂	讀經, 作文, 習字, 讀古文詞
	中學堂	讀經, 詞章
계묘학제	初等小學堂	讀經講經, 中國文字
	高等小學堂	讀經講經, 中國文學
	中學堂	讀經講經, 中國文學
임자계축학제	小學校	國文
	中學校	國文
임술학제	小學校	國語
	中學校	國文

우선 임인학제에서는 어문교과목으로 ‘독경’, ‘자과’, ‘습자’, ‘작문’, ‘독고문사’, ‘사장’이 있다. ‘자과’는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몽학당에만 있으며 4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1학년은 실자(實字)를 배우며 여러 종류의 명사에 그림, 주석을 더해 가르친다. 2학년은 정자(靜字), 동자(動字), 그리고 이들이 명사와 결합하는 방법, 3학년은 허자(虛字), 4학년은 ‘자를 쌓아서 문장을 구성하는 법[積字成句法]’을 배운다.²⁾ 이처럼 ‘자과’는 글자의 의미, 그리고 단어 조합, 문장 구성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학년별 과목구성에서는 “1학년은 ‘자과’수업의 시간이 많으며 자의(字義)를 논한 다음에 나머지를 논할 수 있다.”고 했다.³⁾ 다음 ‘작문’ 수업의 경우 심상소학당에서는 구어로 4~5문장의 글을 짓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문장의 수를 늘려 보다 긴 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등소학당에서는 기사문, 논설문 등 다양한 문체의 글을 짓는 법을 배운다. ‘독고문

2) 顧明遠(1992), 《教育大辭典1》, 309쪽 참조.

3) 〈欽定蒙學堂章程〉 참조.

사, ‘사장’에서는 고문, 즉 문언을 읽고 이로써 글을 짓는 방법을 배운다.⁴⁾

계묘학제의 어문 교과목으로는 ‘독경강경’, ‘중국문자’, ‘중국문학’이 있다. ‘중국문자’의 요지는 학생들이 상용의 글자, 문장의 이치를 깨우치고, 속어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있으며 이는 작문을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각 학년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은 동자(動字), 정자(靜字), 허자(虛字), 실자(實字)를 구별하는 법, 이를 연결하는 법, 2학년은 句를 구성하는 법, 속어로 2~3문장의 글짓기, 3학년은 句로 章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며 점차 문장의 수를 늘려 보다 편폭이 긴 글을 짓는 연습을 한다. 이처럼 ‘중국문자’는 품사 및 문장, 글을 구성하는 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국문학’의 경우 고문을 읽고 속어로 고문을 번역하는 법, 그리고 글을 짓는 법을 배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다 다양한 문체를 접하게 하고 작문에 있어서는 문장의 편폭을 점차 늘린다.⁵⁾

임자계축학제에서는 ‘국문’ 수업이 개설되고 기존의 경전과 관련한 수업이 사라진 점이 특징이다. 소학교⁶⁾, 중학교에서는 모두 ‘국문’을 가르치지만 각각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이 상이하다.

초등소학교는 우선 응당 그 발음을 바르게 하고 간단한 문자의 독법, 서법, 작법을 알게 하고 점차 일상적 문장을 가르치며 언어를 연습하게 한다. 고등소학교는 우선 앞의 항목에 근거하여 교수하고 普通文의 독법, 서법, 작법을 점차 가르치며 언어를 연습하게 한다.⁷⁾

국문은 우선 응당 근세의 문장을 가르치고 점차 고문에 가까워진다. 문자원류, 문법요략 및 문학사의 대강도 가르친다. 실용적인 간단한 문장을 짓게 하고 습자를 겸하여 가르친다.⁸⁾

4) 〈欽定小學堂章程〉, 〈欽定中學堂章程〉 참조.

5) 〈奏定初等小學堂章程〉, 〈奏定高等小學堂章程〉 참조.

6) 1915년 ‘초등소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며 1922년 ‘초등학교’는 다시 ‘초등소학교’로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초등소학교의 명칭을 사용했다.

7) 初等小學校首宜正其發音,使知簡單文字之讀法、書法、作法、漸授以日用文章,并使練習語言。高等小學校,首宜依前項教授漸及普通文之讀法、書法、作法,并使練習語言。〈小學校令〉

우선 소학교에서는 ‘언어를 연습하게 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다. 초등단계에서는 발음을 교정하고 간단한 문자를 익히며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문장을 익히고 언어를 연습한다. 이어서 고등단계에서는 ‘보통문(普通文)’, 즉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문장의 독법, 서법, 작법을 가르치며 역시 언어를 연습하게 한다. 한편 중학교의 ‘국문’ 수업에서는 근세의 문장에서부터 고문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2학년은 ‘문자원류’, 3학년은 ‘문법요략’, 4학년은 ‘문법요략’, ‘중국문학사’ 수업을 첨가한다.

임술학제의 어문교육은 ‘국어’와 ‘국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1920년 교육부에서 소학교의 ‘국문’ 과목을 ‘국어’로 바꾸고 구어를 교육할 것을 명한 것에서 말미암는다. 초급소학의 ‘국어’과정은 언어와 문자,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문자 수업은 다시 독문, 작문, 글자쓰기[寫字]로 세분된다. 언어수업은 ‘국어의 이야기, 연설을 알아들을 수 있고 국어로 간단한 담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자수업의 독문, 작문도 역시 구어체 문장을 대상으로 한다.⁹⁾ 한편 중학교의 ‘국문’수업은 문어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교육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과목의 요지는 소학교의 국어과정에 이어서 문자를 운용하는 능력을 충분히 연습시키고 문학의 흥미를 기르는 것에 있다. 구어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어체의 문장도 이해한다. 얕은 것에 깊은 것으로 나아가 하나의 원을 이루며 고급 중국어 국문의 기초가 된다.”¹⁰⁾

‘국문’은 구어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언문, 즉 고전 중국어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國文首宜授以近世文,漸及于近古文,并文字源流文法要略及文學史之大概,使作實用簡易之文,兼課習字。〈中學校令〉

9) 〈新學制課程標準綱要·小學國語課程綱要〉 참조.

10) 本科要旨在與小學國語課程銜接,借以較充分的練習運用文字的能力并涵養文學趣味,由了解語體文,進而了解文體文,由淺及深,自成一圓周,并爲高級中國語國文的基礎。〈新學制課程標準綱要·中學國文課程標準〉

학제별 어문 교과목의 종류와 그 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과거를 위한 경전 중심의 어문교육에서 탈피하여 국문, 국어 과목이 탄생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학제체제가 도입된 초기의 임인학제, 계묘학제의 경우 각각 ‘독경’, ‘독경강경’과 같이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계묘학제에서 ‘중국문자’, ‘중국문학’ 수업이 출현했지만 초등소학당의 경우 매주 ‘독경강경’ 12시간, ‘중국문자’ 4시간, 고등소학당의 경우 ‘독경강경’ 12시간, ‘중국문학’ 8시간이 분배되어 여전히 경전에 대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입자계축, 입술학제에서는 경전과 관련된 과목이 초, 중등단계의 어문교육에서 사라졌으며 대신 ‘국문’, ‘국어’의 과목이 등장한다. 이는 어문교육이 경전과 관련한 내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둘째, 어문 교과목 개념의 형성 과정을 반영한다. 어문 교과목의 명칭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인학제에서는 어문교육 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나열했으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어문교과목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계묘학제에서는 ‘중국문자’, ‘중국문학’으로 이를 명명했다. 실제 ‘중국문자’는 품사 및 문장, 글을 구성하는 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임인학제의 ‘자과’, ‘습자’, ‘작문’ 수업을 종합한 것에 해당한다.¹¹⁾ 이후 입자계축학제에서는 이를 국문이라 칭했으며 이는 구어체, 문어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5·4운동 이후, 백화, 구어가 중시되면서 입술학제에서 ‘국문’, ‘국어’ 과목을 구분했다. 그리고 1930년 무렵 다시 문언과 구어를 모두 포괄하는 ‘語文’ 개념이 출현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교과목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셋째, 모든 학제에서는 구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언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인학제의 경우 몽학당, 심상소학당에서는 구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를 기반으로 고등소학당, 중학당에서는 ‘독고문사’, ‘사장’과 같이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계묘학제에서도 ‘중국

11) 顧明遠(1992), 《教育大辭典1》, 309쪽 참조.

문자'에서 구어를 익히고 '중국문학'을 통해 문언을 배운다. 임자계축학제의 초등소학에서는 '언어연습'을 중시하고 고등소학은 '고문'에 중점을 둔다. 임술학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학교에서는 구어체의 '국어', 중학교에서는 문어체의 '국문' 수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모두 구어를 우선으로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어를 가르치며 이로써 문어체 글을 짓는 것을 어문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학제체제 안에서 어문교과목의 종류와 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어문교육이 국문, 국어 개념의 정립과 함께 새로운 교과목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어문교육은 초급단계에서는 언어교육을 중시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문언으로 글쓰기를 목표로 한 점이 특징이다.

2. 어문 교과서의 출현과 전문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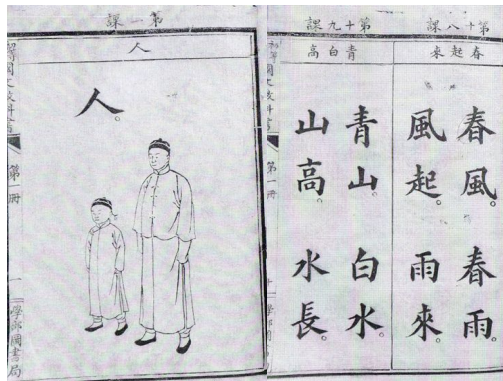
교과서가 출현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어문교과서가 독립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다. 예로 중국인에 의해서 발행된 최초의 신식 교과서 《蒙學課本》(1897)에서는 어문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교과 구분 없이 문, 사, 철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¹³⁾ 학제체제가 갖추어지고 어문교과목이 출현하면서 어문 교과서도 독립적으로 출간되었다. 최초로 상무인서관에서는 <주정학당장정>에 의거하여 《最新國文教科書》(1904)¹⁴⁾를

12) 근대시기 출간된 어문교과서는 그 양이 방대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일부 교과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1차 자료는 CALIS, ishare, iask.sina.com을 통해서 수집했다. 등급별 어문교과서의 구성, 언어형식, 그리고 교과서에서 문법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주석을 통해 그 서지사항을 기록했으며 참고문헌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13) 남양공학(南洋公學)에 부속한 소학당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李杏保, 顧黃初(2000:42)에 의하면 전서는 상하권으로 나뉘며 상권은 어문, 하권은 상식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필자는 《(新訂)蒙學課本·初編》(1901)의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양자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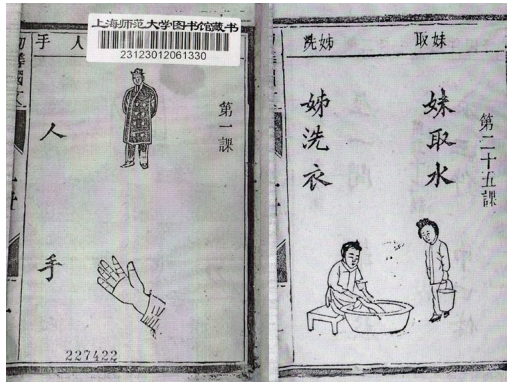
출판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어문 교과서의 출현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청정부의 학부를 비롯하여 중화서국과 같은 기타 출판사에서도 경쟁적으로 어문교과서를 출판했다.¹⁵⁾

어문교과서는 학제체제에 의거하여 등급별로 초등, 고등소학교, 중학교용으로 출간되었으며 각각 다루는 내용이 상이하다. 가장 초급단계인 초등소학의 경우 우선 字를 익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두 글자 이상의 자를 조합하는 법[連字之法], 문장을 구성하는 법[造句之法]을 학습하게 된다. 예로 《國文教科書》(1909)¹⁶⁾, 《中華初等小學國文教科書》(1913)¹⁷⁾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國文教科書》

- 14) 1904년 《初小國文教科書》 1권이 출간된 이후 이어서 10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이후 《高小國文教科書》 8권이 출간되었다. 그 교수법을 다룬 《國文教科書教授法》도 출간되었다. 출간과정 및 그 영향력에 관해서는 李杏保, 顧黃初(2000:34-35)를 참조할 수 있다.
- 15) 대표적인 예로 청정부의 학부에서 출간한 국문 교과서로는 《初等小學國文教科書》(1905)이 있다. 이후 중화서국에서 《新制中華國文教科書》(1912)를 출간했으며 이에 맞서 상무인서관에서 《共和國教科書新國文》(1912)을 출판한다.
- 16) 학부편역도서국(學部編譯圖書局)에서 편찬한 것이다.
- 17) 華鴻年, 何振武가 편집했으며 상해 중화서국에서 출판했다.



〈그림 2〉 《中華初等小學國文教科書》

두 교과서에서 모두 1과에서는 한 글자의 단어를 제시했으며 이후에는 두 글자의 어휘, 짧은 문장을 다룬다. 초급 소학당용 《最新國文教科書教授法 例言》(1905)¹⁸⁾에서도 단자(單字)의 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연결하는 법, 두세 자를 연결하는 법, 문장을 연결해서 단문을 이루는 법을 순차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초등소학 교과서는 대개 초반부에는 한 글자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며 후반부에서는 단어, 짧은 구문, 문장의 예시를 통해 학생들이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다. 그 언어형식은 다음절 어휘보다는 대개 1음절 어휘로 구성되는 것으로 미루어 문어체에 가깝다.

고등소학교, 중학교의 국문교과서는 선문(選文)의 독본형식이다. 고등소학교의 교과서의 예로 《女子國文教科書》(1914)¹⁹⁾를 살펴보면 그 서문에서는 ‘사물을 묘사하고 사상을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며 그 지덕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글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실용’을 중시한다고 했다. ‘就學’, ‘國文’, ‘孝親’, ‘運動’ 등과 같이 특정 소재를 제목으로 짧은 단문

18) 蔣維喬, 莊俞이 편집했으며 上海商務印書館에서 출간했다.

19) 沈頤, 范源廉, 楊喆이 편집했으며 上海中華書局에서 출간했다. 이는 6책으로 구성되며 3년, 6학기 동안 학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을 신고 있으며 선문의 범위는 매우 넓다. 서문에서는 경전에서부터 유럽, 미국의 번역본도 취했다고 밝혔다. 본서의 끝에서는 이 책은 수신, 역사, 지리, 이과, 기타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을 취했으며 다양한 문체를 갖추었다고 소개했다. 교과서에 채택된 글의 언어형식은 문미에 ‘也’자가 출현하고 문언에 가깝다. 중학당의 교과서에서는 시대별로 다양한 문체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예로 《國文教科書中學堂用》(1908)²⁰, 《中學國文讀本》(1908)²¹에서는 청대에서부터 원명, 송에 이어 진한(秦漢)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문장을 신고 있으며 역시 문어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초급 소학, 고등소학, 중학의 어문교과서는 각각 그 내용, 구성이 상이하다. 초급 단계에서는 한 글자나 단어 위주이며 이후 한 문장, 그리고 이로 구성된 글을 익힌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체를 사용하며 그 안에서 과학, 민주와 같은 근대적 지식을 접하도록 한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문어체의 글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경서, 역사서를 읽고 문언으로 글을 짓는 법을 배운다. 교과서에 백화사용은 《新體國語教科書》(1919), 《白話文範》(1920), 《新法國語教科書》(1920)에서 비롯된다. 강설금(2016:292)에서는 백화문의 확산에 교과서가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했다.

국문, 국어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교과서도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임자계축학제에서 국문 과목을 구성하는 ‘문자원류’, ‘문법요략’, ‘문학사’ 등의 교과목이 생겨나면서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도 국문 교과서와 별도로 출판된다. 예로 《문법요략》은 문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 교과서로 상무인서관, 중화서국에서 각각 출판되었다. 두 권 모두 상편과 하편, 문전편(文典篇)과 수사편(修辭篇)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상편과 문전

20) 吳曾祺이 편집했으며 上海商務印書館에서 출간했다. 본고에서는 1909년에 재판된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21) 林紓가 편집했으며 上海商務印書館에서 출간했다. 8책으로 구성되며 중학교 4년 과정 동안 학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1913년에 출간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편에서는 품사를, 하편과 수사편에서는 글의 구성, 표현법과 관련한 수사적 내용을 다룬 점이 특징이다. 王松泉(2001)은 근대시기 어문학과 체제는 ‘文[선문]’과 ‘知[지식]’으로 양분된다고 했으며 이와 같은 교과서는 바로 ‘지식’을 중점으로 하는 어문지식 교과서에 해당한다. 어문 교과목의 구성이 세분화되면서 교과서 역시 세분화되며 각 영역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교과서와 함께 이를 교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교수법 관련 서적도 함께 출시된 점이 특징이다.²²⁾

교육체계 안에서 어문 교과가 정립되면서 어문교과서가 독립적으로 출현했으며 초급소학, 고급소학, 중학 각 등급별 어문교과서는 그 구성, 내용이 상이하다. 이후 어문교과는 보다 세분화되면서 전문성을 띠게 되며 교수법과 관련한 책도 함께 출간된다.

3. 교육잡지에 반영된 어문교육의 쟁점

근대시기 중국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잡지들이 활발히 출간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教育世界》, 《教育雜誌》, 《中華教育界》 등을 꼽을 수 있다.²³⁾ 교육잡지에서는 실제 교사이거나 혹은 교재편집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당대 어문교육의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

22) 《最新初等小學堂國文教科書教授法》(1905), 《共和国教科书新國文教授法》(1916)과 같다.

23) 《教育世界》는 1901년 5월 羅振玉, 王國維 등에 의해 상하이에서 창간되어 1908년 1월까지, 166기가 출판되었다. 《教育雜誌》는 商務印書館에서 1909년부터 1948년까지 총33권, 382기가 출판되었으며 그 사이에 두 차례 출간이 중단되기도 했다. 《中華教育界》는 1912년 1월, 上海中華書局에서 만든 교육월간 잡지로 1937년 8월 제25권, 8기까지 출판된 후, 일본의 침략이 상하이까지 이르러 출간이 중단되었으며 1947년 다시 간행된 이후, 1950년까지 간행되었다. 교육평론, 교육저서, 중소학 교육연구, 국외교육번역, 국내외교육신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어문교육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고의 ‘교육잡지’는 이와 같이 교육과 관련한 잡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라 기대한다.

근대시기에 출간된 교육잡지에서는 어문 교육을 변화시키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²⁴⁾ 논의 내용의 대략적 경향을 살펴보면 등급별로 소학, 중학 각각의 국문교수에 대해 논의하거나 독해, 작문, 습자 등 각 영역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교과서의 편찬, 새로운 교수 방법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 예가 있다. 그 가운데 당시 어문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으로 구어, 백화교육을 꼽을 수 있다. 예로 <언문교육론>에서는 “문자 교수는 언어를 첫 걸음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백화체를 우선 교육해서 이를 바탕으로 문언체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²⁵⁾ <국문의 교수는 응당 언어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논함>에서도 그 제목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어체 문장의 교육을 주장했다.²⁶⁾ 이후 교육잡지에서는 문언과 백화의 경쟁에 있어서 결국 백화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백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었다. 仲九(19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백화문 문체는 토론의 시대를 지나 실행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²⁷⁾

하지만 백화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교육시기, 분배시간, 교육방법 등 논의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었다. 우선 고급단계의 학생들에게 백화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초급 소학교에서 구어체 교육이 의무화된 후, 고급 소학교, 중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언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고급단계에서도 구어체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등학교 국문교육의 몇 가지 문제>에서는 중등학교의 초급, 고급단계에서 모두 문언과 백화를 함께 가르쳐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백화는 쉽

24) 본고에서는 李杏保, 方有林, 徐林祥 편, 《國文國語教育論典(上)》, 北京: 語文出版社, 2014.을 저본으로 본고의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51편의 글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5) 庾冰, <言文教論>, 《教育雜誌》제4권 제3호, 1912.

26) 藩樹聲, <論教授國文當以語言爲標準>, 《教育雜誌》제4권 제8호, 1912.

27) 仲九, <對於中等學校國文教授的意見>, 《教育潮》 제1권 제5기, 1919.

다.”,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알 수 있다.”고 하며 중등학교의 초급단계까지 백화를 위주로 교육하고 고급단계의 경우, 더 이상 백화를 가르치지 않고 문언을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고급 중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백화를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²⁸⁾

한편 백화를 가르치되 문언은 계속해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어문교육에서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백화를 적극적으로 제창하는 이들은 중국의 고서는 가치 없으며 문언은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일부 학자만 익히면 되고 학생들에게는 이를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²⁹⁾ 이에 반하여 백화와 함께 문언 역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언으로 지어진 글에 담긴 과거의 문화, 사상은 시대적 가치를 지니며 현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있다.³⁰⁾ 둘째, 중국사회에서 아직까지 백화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자는 현재의 책, 신문에서는 여전히 문언을 많이 사용하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백화만을 배울 경우, 오히려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염려했다.³¹⁾ 일부는 고서는 어렵고, 실생활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초중학생이 배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고급 중국어의 기초를 닦고 근대인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평이한 문언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³²⁾ 또한 백화 자체가 문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언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백화의 품사, 겸사, 성어 등은 부족해서 문언에서 빌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백화는 문언에서 옛 재료를 끌어 와 새로운 방을 짓고 있다”고 하며 백화를 익히기 위해서는 문언 교육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겼다. 작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백화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서를 읽어야 하며 따라서 문

28) 朱自清, 〈中等學校國文教學的幾個問題〉, 《教育雜誌》 제17권 제7호, 1925.

29) 仲九, 〈對於中等學校國文教授的意見〉, 《教育潮》 제1권 제5기, 1919.

30) 朱自清, 〈中等學校國文教學的幾個問題〉, 《教育雜誌》 제17권 제7호, 1925.

31) 朱經農, 〈對於初中課程的討論 國語科的內容〉, 《教育雜誌》 제10권 제4호, 1924.

32) 楊賢江, 〈初中學生學習國文底旨趣〉, 《學生雜誌》 제10권 제11기, 1923.

언 역시 교육해야 함을 주장한다.³³⁾ 이처럼 교육잡지에서는 백화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그 교육방법, 문언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잡지에서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의 도입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서양의 교육이론을 수용하거나 중국어문 교육에 적합한 방법을 창안하면서 어문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예로 孫儂工(1894~1962)는 중등어문교육에 있어서의 달톤 플랜(Dalton Plan)의 적용³⁴⁾, 黎錦熙(1890~1987)은 국어과에서의 ‘話法’의 적용³⁵⁾을 주장한 것과 같다. 문법 역시 새로운 어문교육 방법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보통 중학 국문교과 과정과 교재에 대한 건의>에서는 중학교 국문 교과과정에서 문법수업을 중시해야함을 주장했다. 당시 입학계축학제의 중학 국문수업은 ‘강독’, ‘작문’, ‘습자’를 기본으로 하며 2학년은 ‘문자원류’, 3학년은 ‘문법요략’, 4학년은 ‘문법요략’, ‘중국어학사’의 수업을 보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는 ‘문자원류’, ‘문학사’는 가르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문법요략’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법학은 중학교 국문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며 이는 국문을 익히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익히는데 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문법은 국문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익힐 시에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³⁶⁾ <초중 국문교과서 문제>에서는 국문에도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법칙이 있음을 주장한다. 문장의 뜻이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때에 국문을 배운 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며 이것이 바로 규칙, 문법이 존재함을 증명

33) 朱自清, <中等學校國文教學的幾個問題>, 《教育雜誌》 제17권 제7호, 1925.

34) 이는 1919년 파커스트(H.Parkhurst)에 의해서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달톤(Dalton)에서 시행된 교육과정 조직 및 학습활동의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개인차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조직 및 학습활동의 전개를 목표로 하며 협동성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孫儂工, <文藝在中等教育中的位置與道爾頓制>, 《教育雜誌》 제14권 제12호, 1922.

35) 여금희는 讀法과 구분하여 실제 구어를 반영한 話法の 교육을 강조했다. 黎錦熙, <國語科“話法”教學的新案>, 《教育雜誌》 제14권 제4호, 1922.

36) 周予同, <對於普通中學國文課程與教材的建議>, 《教育雜誌》 제14권 제1호, 1922.

한다고 했다. 그는 습관에 의해서 법칙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법칙을 익힘으로써 보다 경제적으로 국문을 익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의 국문교육은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그쳤다면 문법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문을 배움에 있어서 법칙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문교수의 과학화라 간주했다.³⁷⁾

문법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그 법칙을 단순히 나열, 암기시키기보다 글 안에서 이를 익힐 것을 권장했다. <자연스러운 문자 교학법>³⁸⁾에서 문법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이를 자연스럽게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법의 공식을 언급하는 것 보다는 꼭 가르쳐야 한다면 책을 읽을 때에 이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했다. 仲九(1919)도 문법을 작문법, 수사법과 함께 가르칠 것을 주장했다.

어문교육에 있어서 문법은 국문교수의 과학화로 중시되었으며 이를 교수방법에 적용시킴으로써 국문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Ⅲ.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특징

1. 구어교육과 백화운동

근대시기 어문교육에 있어서 구어는 백화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중시되었다. 학제체제가 정립되면서부터 교육장령, 목표에서는 초급단계에서는 언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항목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의 언어형식은 문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구어를 익히는 것은 문언을 익히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37) 仲九, <初中國文教科書文題>, 《教育雜誌》 제17권 제10호, 1925.

38) 吳研因, <文字의自然教學法>, 《教育雜誌》 제14권 제3호, 1922.

여겼으며 궁극적으로는 문언을 배우는 것, 문언으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어문교육계에서는 1910년 초반 무렵부터 이와 같은 문언 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었으며 구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교육잡지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사회에서 백화운동이 시작된 시기보다 앞선다. 호적이 1917년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고 백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렵 어문교육계에서는 이미 백화교육에 대한 논의의 단계에서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특히 1920년, 교육부에서 소학교의 ‘국문’ 과목을 ‘국어’로 바꾸고 구어를 교육할 것을 명한 후, 초등 소학교 저학년의 구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백화교육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처럼 교육계에서는 백화운동에 앞서 구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백화운동에 부응하여 즉각적으로 구어교육을 제도적 차원에서 실행했다.

어문교육계에서는 백화의 실체, 구체적인 측면을 논의한 점이 특징이다. 백화는 응당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백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범으로 삼을만한 백화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백화로 글쓰기가 제창되긴 했지만 교육 자료로 삼을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과거에 속어로 지어진 소위 백화소설 역시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교과서에 채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일부는 백화로 지어졌지만 문어체의 어투가 섞여 있기도 했다. 따라서 어문교육계에서는 백화를 교육하기 위해서 백화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백화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논의한다. 백화만으로 글을 짓는 것은 가능한가, 문언이 섞여 있다면 이는 백화문이라 할 수 없는가를 비롯하여 백화문은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되는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사상은 고려치 않아도 되는가, 통일된 표준의 국어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쓴 백화문은 통용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해야 했다. 이처럼 어문교육계에서는 백화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화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어문교육계에서 백화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당시 백화운동이 당면한

문제와 연관된다. 즉 백화운동이 시작될 당시 백화로 글을 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백화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우선 표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구어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호적은 1918년 〈建設的文學革命論〉³⁹⁾에서 표준이 되는 국어가 없는 상황에서 국어의 문학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표준국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기 보다는 백화로 글을 지음으로써 백화문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화문학을 통해서 미래 중국의 신문학에 사용될 백화가 바로 미래 중국의 표준 국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백화문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 《유림외사》와 같은 기존의 백화문학에서 오늘날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골라 쓰고 부족하면 오늘날 백화로 보충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언 역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호적은 백화문학을 제창했지만 백화에 사용될 표준국어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했으며 구어만으로 백화문을 작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또한 호적은 《백화문학사》(1928)에서 무대 위에서의 대화인 ‘白(백)’으로 말로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청백의 ‘백’으로 꾸밈을 가하지 않은 말, 명백의 ‘백’으로 유창한 말로 ‘백화’의 범위를 설정하기도 했다. 다만 호적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화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이에 근거하여 백화문을 가리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어문교육에 있어서 구어교육은 학제체제의 정립 초기시기부터 문언을 익히기 위한 기초로 중시되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에서 사용된 언어형식은 여전히 문어체였다. 백화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육계에서는 이미 구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백화운동 이후 구어교육은 교육현장에서 곧바로 공식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문언과 백화의 교육 분배, 모범 백화문의 부재와 같은 난제를 맞닥뜨렸으며 이는 백화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와 직결된다.

39) 《新青年》 제4권 제4호. 1918.4.15.

2. 문법개념의 형성과 어문교육에의 적용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양상 안에서 중국의 ‘문법’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근대시기 중국의 ‘문법’은 중의성을 띤다. 당시 서양의 ‘grammar’를 수용하면서 품사개념을 비롯한 문장의 구성법을 ‘문법’이라 하는가 하면 본래 중국의 전통적 작문법 역시 ‘문법’이라 명명했다. 따라서 ‘문법’은 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⁴⁰⁾ 이러한 특징은 어문교육에서의 문법과 관련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교육잡지에서 언급되는 문법개념은 종종 그 범위, 개념이 상이하며 이는 당시 문법의 중의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를 들면 〈국문학습법〉⁴¹⁾에서는 교육자료 선택 시에 주의할 항목으로 ‘문법’, ‘수사’, ‘구조’를 언급하며 각각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문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법(章法)을 문법이라 여겼으며 장법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어서 중국에서는 “글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文無定法)”는 말이 생겨났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문법개념은 ‘수사’, ‘구조’를 포함했다고 했다. 한편 스스로가 말하는 문법은 ‘造句述意(문장을 지어 뜻을 서술하는 것)’을 뜻하며 전통적 의미와 상이함을 밝혔다. 한편 〈초중 과정에 대한 토론, 국어과 내용〉⁴²⁾에서는 초급 중학에서 국문을 가르칠 때에 문법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문법은 광의의 문법으로, 문장을 짓거나 글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수사적 요소, 장(章), 단(段)을 나누고 표점을 찍고, 전체 문장의 구성을 조직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밝혔다. 두 글에서 문법은 각

40) 필자는 초기 문법서를 통해 근대시기의 문법개념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즉 전통적 문장의 작문법의 의미로 사용되던 ‘문법’이 서양의 ‘grammar’의 번역 어로도 사용되면서 근대시기 ‘문법’이라는 용어에는 서양의 ‘grammar’, 전통적 작문법 ‘文法’의 의미가 혼재되어 현재의 문법개념과 달리 수사적인 내용을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혜영(2014) 참조.

41) 陳東原(1923), 〈國文學習法〉, 《學生雜誌》 제10권 제6호.

42) 朱經農(1924), 〈對於初中課程的討論 國語科的內容〉, 《教育雜誌》 제10권 제4호.

각 현대적 협의의 의미로, 전통적 광의의 의미로 상이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문법을 대상으로 ‘문법요략’의 수업이 만들어지고 교과서 《문법요략》도 출간되면서 문법교육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의 문법 역시 모두 중의성을 띠는 개념으로 품사와 문장의 구성에서부터 수사적 용법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문법은 작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띤다. 이는 근대시기 문법개념의 특징으로 중국에서 문법개념의 의미변화 과정에 해당한다.

서양의 문법은 중국에 수용된 이후 어문교육에서도 일찍부터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로 초기 교과서에서부터 문법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다. 《(新訂)蒙學課本·初編》(1901)에서는 당시 어문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품사개념을 비롯한 서양의 문법개념을 수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⁴³⁾ 이후 소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에서 품사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교수법의 책에 근거하면 품사개념, 어순 등의 문법적 특징을 글자의 조합, 구를 형성하는 원리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법을 수용하고 이를 어문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당시 교육계에서는 문법자체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교수자가 혹은 사범학당의 학생들이 익혀서 학생들의 어문의 교육시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친다면 초급 단계에서 이를 논하기 보다는 어문 지식, 경험을 갖추었을 때 이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여겼다.⁴⁴⁾

어문교육에 있어서 문법은 글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인 국문 교수 방법의 하나로 중시되었으며 다독(多讀)을 통해 글을 익혔던 기존의 교육 방법과 대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문을 익힐 수 있는 법칙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문법만을 익히면 국문을 익힐 수 있다, 문장을 읽기 보

43) 서양의 ‘문규(文規)’를 소개하며 《字類略式》에서는 ‘名字’, ‘代字’, ‘動字’, ‘靜字’, ‘狀字’, ‘介字’, ‘聯字’, ‘助字’, ‘嘆字’ 9가지 품사개념에 대해 정의, 설명했다. 이는 《馬氏文通》(1898)의 품사체계와도 일치한다.

44) 《小學國語教學法概要》, 《教育雜紙》, 제16권 1호, 1924.

다는 문법을 통해서 국문을 배워야 한다, 독본은 문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반하여 효율성만을 앞세운 문법 중심의 교육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예를 들면 吳研因은 교사들이 문법 설명에만 공을 들이는 사태를 비난하며 교사들은 여러 가지 문법상의 명칭만을 나열하고 학생들은 이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⁴⁵⁾ 또한 글쓰기, 작문에 있어서 문법만을 익히면 된다는 문법 만능주의적 주장에 반하여 다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은 다양한 문장을 접해야 하며 그 안에서 문법지식을 적용하면서 문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문법 자체를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을 권장했으며 따라서 어문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선문독본, 다독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어문교육이 다독에 의거한 전통적 어문교육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문법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이처럼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 양상을 통해 중국 언어학과 서양 언어학의 만남에서 비롯한 문법개념의 의미 변화, 전통적 어문교육에서 현대 어문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IV. 결론

본고는 근대시기 어문교육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 안에서 당시 백화운동이 어문교육에 미친 영향력 및 서양에서의 문법 수용 이후 어문교육에서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서당에서 과거시험을 위해 이루어졌던 어문교육은 학교, 교과목 체제의 정립과 함께 경학의 부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학제체제 안에서 하나의 교과목,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어문교육 체계는 언어를 바탕으로 문어를 배울 것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초급 단계의 교과서 역시 문어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어문교육계에서는

45) 吳研因, 〈文字의自然教學法〉, 《教育雜誌》 제14권 제3호, 1922.

일찍부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었으며 백화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백화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 백화란 무엇인가, 그 실체에 대해 고민했으며 이는 백화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와도 직결된다. 또한 근대시기 중국의 문법은 서양의 ‘grammar’와 전통적 작문법의 의미로 사용되어 중의성을 띤다. 이는 어문교육 영역에서의 문법 관련 교과목, 교육잡지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문법은 다독에 의거한 전통적 어문교육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교육방법으로 어문교육에 활용되었다.

<References>

1. Bai Ru. “Educational Journal and Republican primary Language Education Research”. Master degree thesis of Neimenggu University, 2010.
2. Chen Yuanhui. *Zhongguo Jindai Jiaoyushi Ziliao Huibian Xuezhì Yanbian*. Shanghai Jiaoyu Chubanshe, 2007.
3. Fan Yuanbo. “Republican primary Language Textbook Research”. *Doctor degree thesis of Huadong Normal University*, 2007.
4. Gu Mingyuan. *Jiaoyu Dacidian1*. Shanghai Jiaoyu Chubanshe, 1992.
5. Kang Seulgeum. “Modern Chinese textbook Research: focus on Humanities”. *Doctor degree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6. Kim Sangwon. “Literature Reform and New culture movement—About ‘national-language literature, and a literary national language’ Hu Shi”.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No.31, (2005)
7. Kim Haeyoung. “Modern Chinese Grammar book in Primary stage” *Doctor degree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8. Lee Bogyong. "Ideology of Language in the May Fourth Movement - a possibility of reading it with Duidai(對待) theory". *The Journal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39, (2016.12).
9. Li Xingbao, Gu Huangchu. *Zhongguo Xiandai Yuwen Jiaoyushi*. Sichuan Jiaoyu Chubanshe, 2000.
10. Li Xingbao, Fang Younlin, Xu Linxiang edit. *Guowen Guoyu Jiaoyu Lundian(1)*. Yuwen Chubanshe, 2014.
11. Shu XinCheng. *Zhongguo Jindai Jiaoyushi Ziliao Dierjuan*. Renminjiaoyu Chubanshe, 1981.
12. Wang Songquan edit. *Zhongguo Yuwen Jiaoyushi Jianpian*. Shehuikexue Wenxian Chubanshe, 2002.
13. Zhao Zhiwei. *Xiandai Yuwen Jiaoyu Fazhan*. Huandong Shifan Daxue Chubanshe. 2012.

< 참고문헌 >

1. 白茹, <《教育杂志》与民国时期的小学语文教育研究>, 内蒙古师范大学, 教育学 硕士论文, 2010.
2. 陳元暉等, 《中國近代教育史資料匯編學制演變》, 上海教育出版社, 2007.
3. 范遠波, <民國小學語文教材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4. 顧明遠, 《教育大辭典1》, 上海教育出版社, 1992.
5. 강설금, <중국 근대 교과서 생태계 연구: 인문 계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 김상원, <文體의 改革과 新文化運動 - 胡適의 “국어의 문학과 문학의 국어”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31권, 2005년.
7. 김혜영, <초기 중국어 문법서 연구: 『馬氏文通』부터 5·4운동까지의 9종 문법서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 이보경, 〈五四 백화문 운동과 언어 이데올로기- 對待論적 해석의 가능성 初探〉, 《中國現代文學》 第39號, 2006.12.
9. 李杏保, 顧黃初, 《中國現代語文教育史》, 四川教育出版社, 2000.
10. 李杏保, 方有林, 徐林祥編, 《國文國語教育論典(上)》, 語文出版社, 2014.
11. 舒新城, 《中國近代教育史資料第2卷》, 人民教育出版社, 1981.
12. 王松泉等編, 《中國語文教育史簡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13. 趙志偉, 《現代語文教育發展》,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2.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change of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modern era. Chinese moder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is period accomplished transformation from traditional to modern, by adopting Western studies and system of education. Aspects of transition in language education of the times are sought through the following three components: educational system, textbook, and discourse on language education in educational journals printed at that time. In particular, examination will be focused on how the formation process of native language concept and Chinese language movements including Vernacular Movement have influenced education, and how Chinese grammar that started with the adoption of Western linguistics is reflected in education.

Language education that traditionally centered around scriptures, started to be taught as subjects in the names of 'Chinese', or 'Chinese language', along with contemplation over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education. In the education field, necessity towards spoken language education was raised even before the initiation of Vernacular Movement.

Education on language was prioritized although acquiring wordings was taken as the ultimate objective. Grammar, discussed in education, contains ambiguity in that it refers both to the Western 'grammar' and traditional Chinese composition, which is held in great esteem for scientification of native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어문교육(Language education), 학제체제(Educational system), 교과서(Textbook), 교육잡지(Educational journal), 백화운동(Vernacular Movement), 문법(Grammar).

